

지역구로, 해외로... 썰렁한 국회

정치권의 여름철 휴지기인 7월 말~8월 초연 국회가 썰렁하다.

6·2 지방선거에 이어 7·28 재보선까지 굵직한 정치 일정이 끝난 후 대부분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의 의원외교 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당대회나 시·도당 위원장 경선에 참여하는 일부 의원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역을 돌면서 국회 의원회관은 거의 텅 비어있는 상태다.

법제사법위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주성영, 이정현,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지난달 31일 러시아로 향했다. 이들은 내달 8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며 '법원과 검찰제도 연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 추진담당인 김성곤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미주대륙 순회 방문에 나섰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국했으며 김영진 의원은 3일 출국,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오는 10일까지 뉴욕·LA·워싱턴DC·토론토 등 북미주 10개 도시를 방문, 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고 범민주 재외동포의 세력 규합에 나선다.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하한기 어떻게 우윤근·이낙연·이정현, 리·일 등서 외교 활동 전대 출마 박주선·김효석 대의원 접촉 구슬땀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일본 오사카 지역의 재외교포의 세력 규합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오는 8일 출국한다.

국회 예결위인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과 함께 아프리카 공적 개발원(ODA)사업 실행 과약을 위해 3일 출국한다. 이들은 10일 동안 가나·탄자니아·이집트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외국 보건의료 및 복지제도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달 30일 출국했다. 주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인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과 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동행,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둘러보고 5일 귀국할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고려인 해외 정착 실태 조사를 위해 2일 출국했다.

김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함께 러시아와 우즈베크 등을 둘러보고 오는 8일 귀국한다. 국회 일자리담당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균 의원은 같은 특위 소속 의원과 함께 지난달 28일 출국했다. 이들은 네덜란드 등 유럽 일

원에서 실업대책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는 5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과 선진국의 재정정책을 둘러보기 위해 2일 북유럽으로 향했다. 이들은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을 둘러보고 오는 9일 돌아온다.

하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효석·박주선·유선호 의원 등은 해외에 나갈 여유가 없다.

지역을 돌며 대의원 접촉에 매달리려던 한시도 아깝기 때문이다. 강기정 의원은 광주시당 경선을 위해 해외 일정을 포기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의 관계자는 3일 "당 분간 정치일정이 없는 데다 국회도 8월 한 달간 사실상 휴무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야의 의원외교 활동 일정이 8월에 집중돼 있다"며 "이 기간 동안 국회 보좌진들도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中 건군절 '정율성 영화' 상영

집중 재조명 배경 관심

중국혁명음악의 대가 정율성(鄭律成) 선생의 고향인 광주에서 생가터 위치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일대기를 그린 '태양을 향하여(走向太陽)'라는 제목의 영화가 중국 건군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베이징의 영화관에서 일제히 상영돼 주목을 끌었다.

중국 당국이 조선족 출신으로 6·25때 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한 정율성을 건군 83주년 행사의 하나로 집중 재조명할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태양을 향하여'는 정율성이 항일전쟁때 '팔로군행진곡(八路軍進行曲)'을 창작하던 시절과 팔로군 여전사인 당쉐송(丁雪松)과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8년 만에 재상영돼 20만명의 관객들이 관람했다.

중국관경정보 인터넷사이트의 편집장이며 인기 블로거인 쓰마핑방은 2일 유투피아(wyzzsx.com)라는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민감한 시기에 건군절을 앞두고 정율성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특별 상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쓰마는 "현재 한반도가 분단되고 남북이 대치된 주요원인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군사훈련은 중국이 북한과 아직도 '피로 응결판' 국가적 의무를 갖고 있는가를 마음 때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쓰마는 또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동맹관계이고 안보의 적은 여전히 일본과 미국인 것들 중국 군부가 이 영화를 통해 의미심장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율성은 한국 광주 태생으로 19살에 중국에 건너와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1950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김일성 주석에게 요청해 중국인으로 국적을 옮긴 후 6·25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 북-중간 우호친선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조선족으로 중국혁명음악의 대가인 정율성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태양을 향하여(走向太陽)' 포스터.

지난 1976년 숨진 정율성은 사망 33년만인 작년 건국 기념일에 '신중국 창건 100인'에 선정됐고 중국 당대의 음악가 섭이, 승성해를 이은 또 하나의 혁명음악의 대가로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팔로군행진곡'은 1949년 중국 건국과 함께 '인민해방군'으로 불려 오다가 1988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정식 군가로 비준을 받았다.

정율성은 또 1950년대에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정치인 '트위터 열풍' 팔로워 숫자는

유시민 8만·노회찬 6만6천·심상정 3만7천명

박근혜 前 대표도 개설 한달만에 3만명 육박

정치인들이 트위터에 흠뻑 빠졌다.

6·2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트위터 열풍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것.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140자 이하 단문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를 이용, 지지자들의 소통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트위터를 활발하게 이용했던 정치인들에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최근 트위터를 개설했다.

박 전 대표는 트위터 개설 불과

한 달 만에 본인의 트위터를 구독하는 팔로워 숫자가 무려 3만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발언보다는 지지자 및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애교 섞인 글을 남겨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트위터 이용은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국민참여당 주권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트위터 팔로워 숫자는 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6만6천여명,

심상정 전 대표도 3만7천여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갖고 있다.

'트위터는 막걸리다'는 제목의 트위터 관련 서적을 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늘 소통에 목말라왔고 정치는 언제나 편청과 소통에 갈등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주는 마법의 램프"라고 극찬했다. 이밖에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도 트위터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정치인에 속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유력 정치인들이 트위터에 빠지는 것은 지지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오는 2012년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트위터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市의회, 집행부 견제

입법·정책 기능 강화

광주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제·개정 등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입법정책실 직원을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별정 5급과 행정 6급, 계약직(가급 1명, 다·라급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실에 계약직 나급 1명을 추가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교육의원 4명이 이번 6대 지방의회에 새롭게 진입함에 따라 교육전문위원 4급 1명과, 6급과 7급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재중 동포매체 “中 예술계 빛낸 조선족 수두룩”

재중 동포들은 중국 예술·연예계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중국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재중 온라인 동포매체 '조글로 미디어'는 3일 중국 예술계에서 조선족의 활약을 전하면서 1930년대 중국의 '영화황제'로 손꼽혔던 김염을 시작으로 인민해방군 군가를 작곡한 작곡가 정율성, '중국 록음악의 아버지' 최건(사진)을 20세기 대표적인 조선족 문화 인재로 소개했다.

경제발전 영향으로 인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는 등 양호한 환경 속에서 "진정한 기가 있는 민족"인 조선족 사회에 우수족순처럼 문화·예술인재들이 배출돼 왔으며, 한 때 '세계 6대 청년 작곡가'로 평가받았던 안승필(40), 오기화(이상 작곡가), 김영철(성악가) 씨와 함께 중국 음악계를 들쭉이는 장씨 3형제 등을 실례로 들었다.

가요에는 "요즘 중국인들이 '조선족 가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김해심 씨와 그룹 '아리랑', 김미아 씨



〈최건〉 〈조선족 그룹 아리랑〉

등이 명함을 내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네번째 앨범 '독립일' 제작시 노래 선곡과 편곡은 물론 제작자로서 직접 활약, 다방면의 재능을 한껏 과시했다. 최근 내놓은 신곡 '햇빛 아래의 별(陽光下的星星)'은 지난해 말 3주 연속 중국의 음악 라디오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합창음악으로 중국의 팬들을 사로잡아온 김택남, 김윤길, 장진우, 권혁 등 4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그룹 '아리랑'과, 연변대학(민요 전공) 출신으로 중국 CCTV '별들의 길'에서 연말 대상을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김미아(27) 씨도 차세대 조선족 음악 인재로 주목 받고 있다. /*연합뉴스

Premium buffet

맛있는 식사로의 초대

하이엘리시아